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9.14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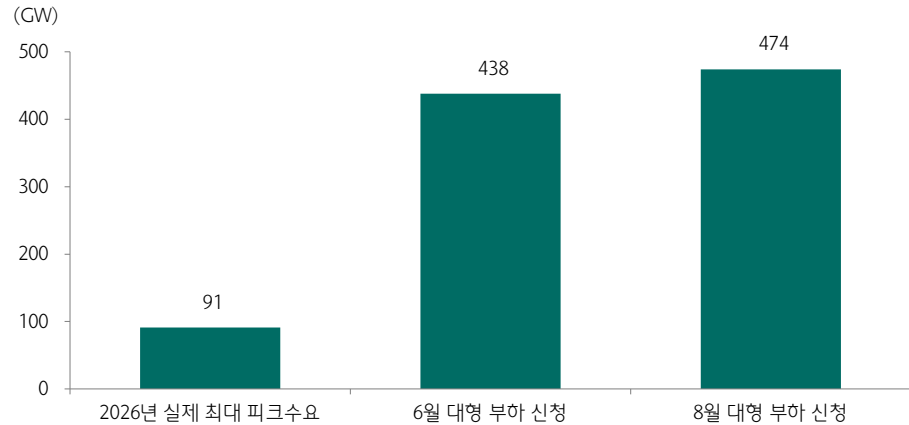
텍사스의 Batch Zero 1차 결과 발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중요

474GW의 전력 연결 신청: 텍사스는 신청 MW보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선별

- 텍사스의 Batch Zero는 실제 사업 진행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하기 위한 첫 일괄 심사
- 9월 초 1차 조건부 분류 결과에서 IREN 2.0GW, Galaxy 1.63GW, Core Scientific 1.03GW 등이 Base Load로 분류
- Batch Zero는 Powered Shell 기업 간 격차를 확대 가능성. 총 개발 가능 GW보다 Base Load, 실제 가압된 전력, 임차계약, 가동시점 등 '전력의 질과 사용 시점'이 기업가치를 좌우할 전망.
- 텍사스 데이터센터 시장의 문제는 발전설비 절대량의 부족도 있지만, 송전망이 단기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는 점도 있다. 텍사스 전기 신뢰성 위원회(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 ERCOT)가 2026년 6월 추적하던 대형 전력사용자 연결 신청은 438GW 이상이었다. 약 89%가 데이터센터였다. 두 달 뒤인 8월 3일 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데이터센터 전수 검증을 지시했을 당시 연결 신청 규모는 474GW 이상으로 증가했다. 텍사스의 사상 최대 전력수요보다 5배 이상 큰 수준이다. 제한된 송전용량의 배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 텍사스의 공공시설 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 of Texas, PUCT)는 7월 11일 Batch Zero 제도를 시행했다. 대형 전력 사용자들의 프로젝트 가운데 실제 사업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기존 송전망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검토하기 위한 절차다. 기존 ERCOT는 대형 전력사용자 프로젝트가 신청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통 영향을 검토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추가되면 연구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신청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대형 부하 연결 신청이 200GW 이상 적체될 정도로 기존 방식의 한계가 커졌다. 전력망 안정화와 효율성 등을 위해 75MW 이상 대형 전력 사용자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 Batch Zero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신청 MW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기존 전력사용 여부, 계통연결 연구 진행 정도, 금융담보 납입, 장비 발주, 건설 진행 상황 등을 바탕으로 Base Load와 Studied Load 등을 구분한다. Base Load는 Batch Zero의 시스템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부하로 취급한다. ERCOT는 Base Load로 인정된 MW는 추가 용량 배분 과정에서 사실상 보호되며 다른 프로젝트와 다시 경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ase Load는 단순한 전력 신청이나 Studied Load보다 전력 확보 가시성이 높은 단계로 볼 수 있다.
- Studied Load는 프로젝트가 Batch Zero 연구에 들어갈 정도로 진행됐지만 요청한 MW 전체를 아직 보장받지 못한 상태다. 향후 전체 계통 연구에서 송전제약이 발생하면 회사가 신청한 용량보다 실제 배정량이 줄어든 수 있다. 동일하게 1GW를 발표한 기업이라도 1GW 전체가 Base Load인 기업과 1GW 전체가 Studied Load인 기업의 전력가치는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들이 발표하고 있는 Base Load는 대부분 Conditional Base Load(조건부 분류)다. 최종 계통 연결 승인이나 실제 전력 사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 ERCOT는 9월 3일 송전·배전사업자에게 Batch Zero 1차 조건부 분류 결과를 전달했다. 이후 IREN(IREN), Galaxy(GLXY), Core Scientific(CORZ), CleanSpark(CLSK) 등 주요 데이터센터 개발업체들이 자신들의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IREN의 Sweetwater 1 1.4GW와 Sweetwater 2 600MW, 합계 2GW 전체가 조건부 Base Load로 분류됐다. 공개된 주요 Powered Shell 업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전력 확보 가시성이 높은 결과 중 하나다. Sweetwater 1은 고압 변전소가 이미 가압됐고, 300MW 규모 데이터센터가 공사 중이다. 해당 300MW는 2027년 4분기 인도가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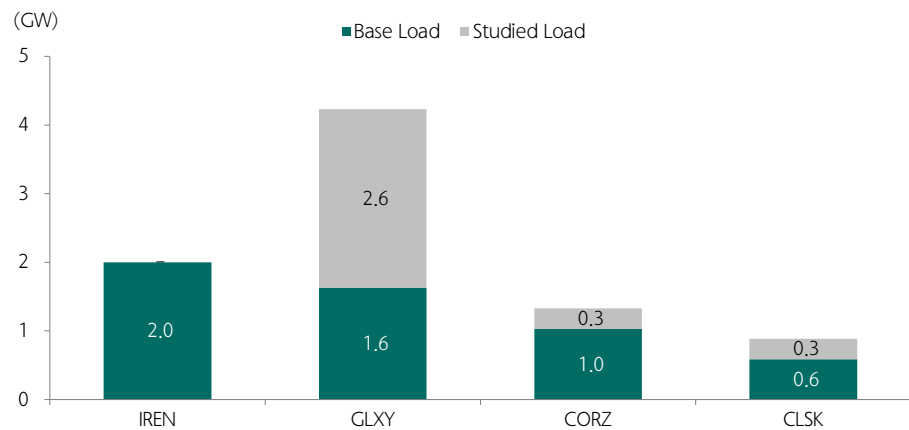
- Galaxy Digital은 텍사스 프로젝트 약 4.23GW의 Batch Zero 결과를 공개했다. Helios I 800MW, Helios II 830MW 등 총 1.63GW가 Base Load로 분류됐다. Caspian 700MW, Selene 900MW, Helios III 1GW 등 총 2.6GW는 Studied Load다. Galaxy의 전체 조건부 분류 용량 가운데 Base Load 비중은 약 39% 수준이다. Caspian은 Galaxy Digital이 Base Load로 제출했지만 ERCOT가 Studied Load로 분류했다.
- Core Scientific의 사례는 ERCOT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보여준다. Denton의 기존 297MW는 이미 오랫동안 사용하던 전력으로 Base Load로 분류됐다. 추가 74MW는 기존 ERCOT 송전계획에 이미 반영돼 Batch Zero의 용량 배분 대상이 아니다. Pecos에서는 기존 300MW가 Base Load, 추가 300MW가 Studied Load다. Hunt의 431MW는 Base Load로 분류됐다. Hunt는 아직 완전히 가동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연결 연구를 마쳤다. 431MW 안정성 연구 승인, 금융담보 납입, 장기납기 장비 발주, 건설 착수 등이 진행됐다. ERCOT가 토지나 잠재 MW보다 실제 투자와 공사 진행을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 ERCOT는 9월 9일부터 Batch Zero에 조건부로 포함된 대형 부하 프로젝트에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서를 발송하고 있다. 기업은 제출한 자료가 실제 사실인지 다시 입증해야 한다. 사업 진행상황과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송전-배전사업자도 검증에 참여한다. 기본 제출기간은 10영업일이며 신청 시 최대 5영업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Batch Zero에서 제외될 수 있다. 25MW 이상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한다. 조건부 Base Load도 추가 검증 절차가 있지만 Studied Load나 일반적인 초기 프로젝트보다 전력 확보 가시성은 높다는 점이 중요하다.
- Batch Zero 등 규제 및 검증 제도 강화가 전력 확보형 데이터센터 사업자(Powered Shell)들에게 부담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업을 상당부분 진행해 전력을 확보한 기업들에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텍사스의 송전망은 모든 부하를 다 감내할 순 없다.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수백 MW의 전력을 확보하려면 기존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Base Load로 분류되고, 변전소, 장비, 금융담보, 건설을 진행한 사업자의 전력은 상대적으로 희소해진다. Batch Zero는 계통 연결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와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 Powered Shell 업체들은 그동안 보유 토지와 잠재 전력량을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설명했다. 연결 신청 자체가 474GW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단순한 파이프라인 MW의 희소성이 낮아진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해당 MW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앞으로는 해당 전력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하다. 실제 사용 중인 전력과 가압된 변전소를 보유한 프로젝트의 가시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Base Load, Studied Load, 초기 개발 파이프라인 순으로 불확실성이 커진다.
- Galaxy Digital은 약 4.23GW의 조건부 분류를 받았지만 Base Load는 1.63GW다. IREN의 Sweetwater는 이번에 공개된 2GW 전체가 Base Load다. 단순 개발 규모만 보면 Galaxy Digital이 더 크지만 계통상 전력 확보 단계까지 반영하면 차이가 줄어든다. 향후 Powered Shell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총 GW와 함께 Base Load 용량, 실제 가압된 용량, 임차계약 여부와 가동 예정시점 등도 중요한 척도가 될 여지가 있다.
-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전력량만큼 전력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중요하다. GPU와 서버를 확보해도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데이터센터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AI 반도체의 세대교체 주기도 빠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수년 지연되면 단순히 임대수익 발생이 늦어지는 것을 넘어 특정 시기의 AI 인프라 수요를 놓칠 수 있다. 동일한 MW라도 가동시점이 빠르고 일정한 가시성이 높은 전력에 더 높은 경제적 가치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Powered Shell 경쟁력의 핵심이 단순한 보유 전력량에서 전력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점(Time-to-Power)으로 이동하는 이유다.
- 계통 연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체 발전을 결합해 전력 사용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ERCOT는 WLPUN(Withdrawal-Limited Private Use Network)을 통해 데이터센터가 자체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력망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력에 상한을 설정하는 구조를 허용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자체 발전을 활용하면 계통에서 요구하는 전력량을 줄일 수 있다. 향후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는 기존 계통 전력을 선점한 Powered Shell과 자체 발전을 활용해 전력 확보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모델이 동시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 Batch Zero의 1차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텍사스에 전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니다. 연결을 원하는 전력 규모가 계통이 단기간에 수용할 수 있는 수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의 '양'보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전력의 실제 사용 시점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ERCOT가 신청 프로젝트를 Base Load와 Studied Load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이 발표한 개발 가능 MW의 질도 처음으로 외부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Powered Shell의 기업가치는 몇 GW를 발표했는가보다 몇 MW가 실제 사용에 가까워졌으며, 언제부터 매출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따라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도표1. ERCOT 대형 부하 연결 신청, 실제 피크수요의 5배 이상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2. Base Load와 Studied L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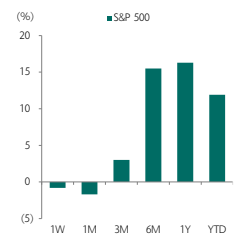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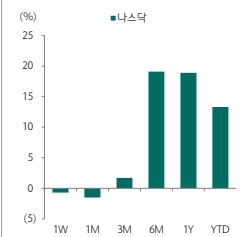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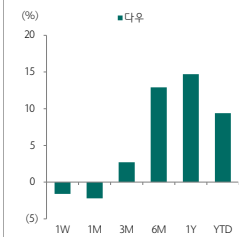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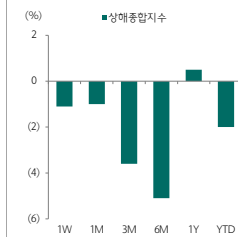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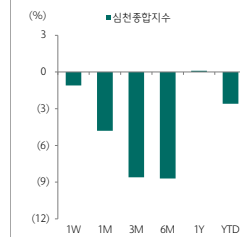
자료: Factset, Howmet Aerospace IR, 하나증권

도표 3. 기업별 Batch Zero 진행상황

기업	Base Load	Studied Load	실제 진행상황
IREN Sweetwater 1	1,400MW	-	고압 변전소 가압 완료, 300MW 데이터센터 건설 중, 2027년 4Q 인도 목표
IREN Sweetwater 2	600MW	-	개발 진행 중
Galaxy Helios I	800MW	-	기존 Helios 캠퍼스
Galaxy Helios II	830MW	-	2026년 1월 ERCOT 승인, 2028년 가압 목표
Galaxy Caspian	-	700MW	회사는 Base로 신청했으나 Studied로 분류
Galaxy Selene	-	900MW	Studied Load
Galaxy Helios III	-	1,000MW	Studied Load
CORZ Denton	297MW	-	2022년 이전부터 Energized
CORZ Pecos	300MW	300MW	기존 300MW Base, 중설 300MW Studied
CORZ Hunt	431MW	-	계통 연구안정성 연구 완료, 담보 납입, 장비 발주, 건설 착수
CLSK Texas	585MW	300MW	조건부 분류
Soluna Kati	166MW	-	Kati 1 83MW Energized

자료: ERCOT,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657.0	26,333.0	52,573.3	3,888.1	2,465.8
1W (%)	-0.8	-0.7	-1.6	-1.1	-1.1
					

주) 9월 11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9월 8일~9월 11일) 리뷰: 높은 금리 및 유가 부담, 인플레이션 경계

- 지난주 미국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약세였다. S&P 500 -0.8%, 나스닥 종합지수 -0.7%, 다우지수 -1.6%다. S&P 500 동일가중 지수는 1.9%,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2.4% 하락했다. 변동성지수는 9% 상승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주중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했고, 미국채 10년물과 30년물 금리도 각각 4.97%, 5.35% 수준까지 높아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과 높은 금리 부담이 투자심리를 압박했다.
-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11월 중간선거 직후 종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중간선거까지 지정학적 긴장과 높은 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 25주년 추모 연설에서도 이란을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하며 현재의 전쟁을 9·11 이후 이어진 '테러와의 전쟁' 논리와 연결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 8월 헤드라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5.4% 상승했다. 중동 갈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 상품가격이 1.1% 오른 가운데 에너지는 4.2%, 디젤은 24.1% 급등했다. 반면 식품·에너지·유통마진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7% 상승했다. 서비스 가격 상승률도 0.1%에 그쳤다. 헤드라인 PPI의 재가속은 에너지 충격이 주도했지만, 근원 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생산자 단계의 물가 압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 8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상승했다. 헤드라인 CPI도 에너지 가격 반등의 영향이 컸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 시장 예상 0.2%를 웃돌았고, 전년 대비로는 2.4%로 7월 2.5%보다 소폭 낮아졌다. 상품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주거비와 일부 서비스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헤드라인 물가 상승은 에너지 영향이 크지만, 근원 물가도 충분히 둔화되지 않아 연준이 물가 안정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지난주 상승 섹터는 에너지(+2.0%), 커뮤니케이션(+1.1%)이었다. 에너지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았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메타의 강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메타는 개인용 에이전트 AI 'Muse'를 출시했다. Muse는 사용자를 대신해 이메일, 쇼핑, 일정관리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사용자별로 분리된 보안 가상머신에서 에이전트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AI 투자 확대가 실제 소비자용 에이전트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 M7으로 구성된 ETF(MACS)와 M7을 제외한 기업들로 구성된 ETF(XMAC)의 수익률은 각각 +0.6%, -1.1% 등이다. M7 중에선 메타(+5.1%), 애플(+3.8%), 테슬라(+3.2%) 등이 강세였다(NVDA -5.2%, MSFT -0.8%, AMZN -0.7%, GOOGL 포함). 지난주 아마존과 퀄컴의 AI 추론용 맞춤형 반도체(ASIC)과 광통신 공동 개발 소식이 있었다. 최대 600억 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클라우드 기업들의 맞춤형 반도체 개발 소식이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만, 확장되는 AI 추론 시장에서 엔비디아 GPU 외 반도체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장기 시장 점유율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주(9월 14일~9월 18일) 프리뷰: FOMC, 클래리티 법안, 유가와 금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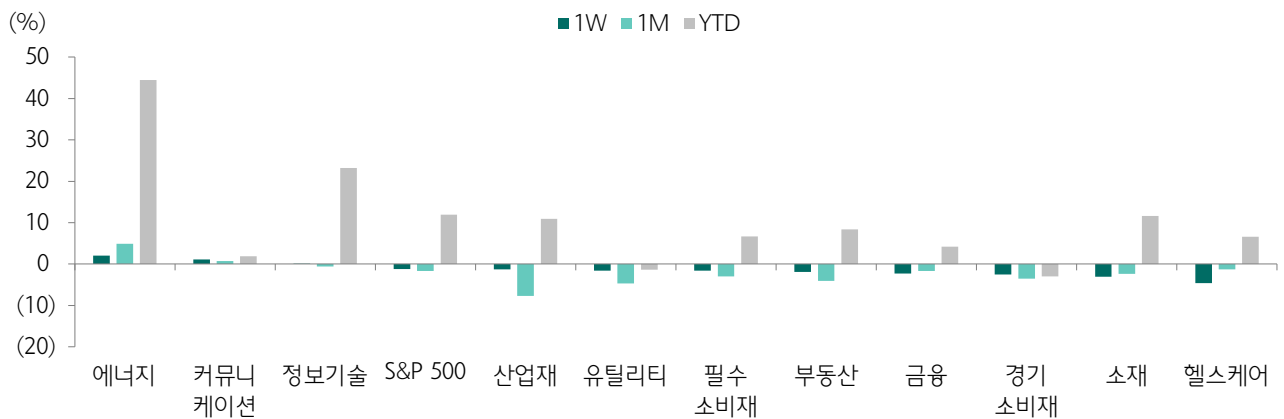
-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이다. 9월 FOMC는 현지시각 15~16일 열리며, 16일 금리결정과 함께 Kevin Warsh 연준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현지시각 11일 미국채 2년물 금리는 4.6%에 근접했고 10년물은 장중 4.98%, 30년물은 5.38%까지 상승했다. 높은 장기금리는 주식의 할인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
- 높은 금리의 배경에는 강한 경제지표와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있다. WTI와 Brent는 11일 각각 배럴당 100.05달러, 104.61달러로 마감했다. 주말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론 공격을 받은 동서 송유관의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동서 송유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핵심 원유 수송로라는 점에서 중동발 공급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물가 기대와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다시 높일 수 있다.
- CME FedWatch 기준 9월 25bp 금리인상 가능성은 9월 3일 49.4%에서 11일 약 87%까지 상승했다. 8월 고용이 예상보다 강했던 데 이어 PPI와 CPI에서도 물가 압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미 25bp 인상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번 FOMC에서는 금리인상 여부 자체보다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점도표에서 연말 정책금리 전망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Warsh 의장이 고유가를 일시적인 공급 충격으로 볼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판단할지가 핵심이다.
- 금리인상이 반드시 증시에 추가적인 악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이미 인상 가능성을 80% 이상 반영한 상황에서 연준이 물가에 단호하게 대응하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과 장기채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물가에 대한 명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연준의 물가 통제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장기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FOMC에서는 기준금리보다 미국채 10년물과 30년물의 반응이 증시 방향에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 15일에 예정된 클래리티 법안 표결도 증시참여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과거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였지만, 최근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증시 투자자들도 통화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 스트레스 완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채 매입의 주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이미 통과한 지니어스 액트지만, 클래리티 법안은 추가 수요처와 거래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을 미국채 단기물과 연동시키고,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규제 관할 및 거래, 시장구조를 명확하게 한다.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클래리티 법안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현지시각 9일 SNS를 통해 지난 7월에도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으며, 휴회에서 돌아오면 입법절차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래리티 법안이 직접적으로 국채 수요를 유발하진 않지만, 미국 재무부의 전략적인 부채 관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높은 금리엔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부담 등이 반영됐을 수 있다.
- 미 재무부는 채권 시장의 유동성 완화와 안정화를 위해 장기 국채 재매입을 발표했다. 10~20년 만기 장기 국채 대상 최대 60억 달러 규모다. 기존 장기물 재매입 상한 20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났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 후 단기물 수요가 강해진다면 필요한 자금 중 더 많은 부분을 단기물로 조달이 가능해진다. 장기물 공급 필요성이 줄어들며, 장기채 공급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 있다. 간접적으로 미국채 30년물의 기간 프리미엄 하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클래리티 법안 자체가 금리를 낮추는 요인은 아니지만, 장기채를 덜 발행해도 되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주요 지표 및 이벤트로는 15일 9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이전치 20.6) / 레드북 YoY(이전치 8.3%), 16일 MBA 30년물 모기지 금리(이전치 6.85%) / 8월 헤드라인 소매 판매 MoM(이전치 -0.6%) / 8월 핵심 소매 판매 MoM(이전치 -0.3%) / 8월 수입 가격 지수 MoM(이전치 -0.4%) / 8월 수출 가격 지수 MoM(이전치 -1.3%), 17일 FOMC 금리결정(이전치 3.75%)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 9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이전치 47.4) / 8월 건축 허가(1,433,000 건) / 8월 주택 착공 MoM(이전치 -12.4%) / 18일 8월 산업 생산 YoY(이전치 1.08%) / MoM(이전치 0.2%) 등이 있다. 15일엔 클래리티 법안 표결도 있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인사로는 17일 금리 결정 후 캐빈 워시 연준의장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주요 기업은 15일 TCOM, 16일 LEN, 17일 CCL, 18일 VFS 등이 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실적 발표는 없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9/11)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657.0	0.9	-0.8	-1.7	3.0	15.5	16.3	11.9
나스닥	미국	26,333.0	1.0	-0.7	-1.5	1.7	19.1	18.9	13.3
다우	미국	52,573.3	1.0	-1.6	-2.2	2.7	12.9	14.7	9.4
STOXX600	유럽	639.1	0.5	-1.7	-2.9	0.9	7.3	15.2	7.9
KOSPI	한국	6,909.9	-1.8	3.3	-1.0	-14.9	25.9	103.5	64.0
KOSDAQ	한국	820.6	-1.9	0.9	-5.1	-20.3	-28.8	-3.1	-11.3
상해종합지수	중국	3,888.1	-1.2	-1.1	-1.0	-3.6	-5.1	0.5	-2.0
심천종합지수	중국	2,465.8	-1.4	-1.1	-4.8	-8.6	-8.7	0.1	-2.6
항테크지수	홍콩	24,805.6	-0.6	-3.3	-1.2	0.4	-2.6	-6.0	-3.2
TOPIX	일본	4,028.3	-0.6	-1.8	-4.0	3.8	11.0	27.5	18.2
니케이 225	일본	64,011.3	-1.9	-1.6	-6.8	-3.0	18.9	43.0	27.2
니프티 50	인도	23,398.1	-0.3	-2.1	-4.0	-1.9	1.1	-6.7	-10.5
Vietnam	베트남	1,795.2	-1.9	-3.1	3.8	0.2	5.8	7.7	0.6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9.11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에너지: 중동 지정학적 긴장 지속으로 유가 6주 고점까지 상승, 에너지 기업 주가 동반 강세
- 커뮤니케이션: 메타 AI 에이전트 'Muse' 출시로 대규모 AI 투자가 실제 소비자 서비스로 이어짐 확인, 섹터 전반 매수세 유입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헬스케어: 노바티스의 잇따른 임상 실패가 심혈관질환 파이프라인 전반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며 바이오, 제약 섹터 전반 약세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9/7	블룸에너지, 일루미나, 에버퓨어 S&P 500 편입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분기 정기 리밸런싱을 통해 블룸에너지, 일루미나, 에버퓨어를 S&P 500에 신규 편입한다고 발표. 21일 개장 전 적용 예정이며 편입 소식에 블룸에너지는 시간외 거래에서 5.26% 급등. 한편 S&P 100 지수에는 델 테크놀로지스, 팔로알토 네트워크, 아리스타 네트워크, 샌디스크가 새롭게 포함
9/9	미국 10여 개 주, 데이터센터 세금 감면 혜택 중단 오하이오, 뉴저지, 일리노이, 워싱턴 등 10여 개 주에서 데이터센터에 제공해온 판매세 면제 혜택을 중단하는 움직임이 확산. AI 붐으로 빅테크 투자가 급증하면서 오하이오주의 세금 감면 규모가 초기 예상의 10배 이상인 15억 달러로 불어난 것이 대표적 사례. 재정 부담과 함께 주민 반발도 거세지는 중으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1%가 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
9/9	퀄컴, AWS와 최대 600억 달러 AI 추론 칩 공동 개발 협약 퀄컴이 AWS와 맞춤형 AI 추론용 반도체 공동 개발 다년 협약을 체결. 퀄컴이 모바일 반도체 기술 기반의 칩 설계를, AWS가 아마존 베드록 등 AI 인프라를 담당하며 초고속 광학 연결 솔루션도 함께 개발하기로 함. AWS의 구매액에 연동해 최대 2,500만주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10년간 구매액이 최대 600억 달러에 달할 경우 전량 행사 시 약 40억 달러 규모
9/10	중동 충돌 격화에 브렌트유 7주 만에 100달러 재돌파 중동 긴장 재고조로 브렌트유 선물이 9일 배럴당 100.02달러로 7월 24일 이후 7주 만에 100달러를 재돌파. 골드만삭스와 BofA는 공급 차질 지속 시 브렌트유가 12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중동 에너지 인프라 훼손 시 최고 150달러 가능성도 제기.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5달러로 노동절에 4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
9/10	애플, 9월 행사서 폴더블 아이폰 듀오 공개 애플이 연례 9월 행사에서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를 포함한 신제품을 공개. 아이폰 듀오는 1,999달러부터 시작하며 독자적 UI와 경쟁력 있는 카메라를 탑재. 아이폰 18 프로는 배터리 수명에서 대폭 도약해 36시간, 프로맥스는 45시간을 제공하며 블랙·버건디 등 신규 색상으로 차별화. 에어팟 5는 129달러·149달러의 가격과 더 긴 배터리 및 무선충전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으며, 애플워치는 시리 리캡 기능을 탑재해 AI 웨어러블로 재편 중
9/10	DOJ, 엔비디아-그록 200억 달러 라이선스 거래 반독점 조사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가 AI 칩 스타트업 그록과 지난해 12월 체결한 200억 달러 규모 라이선스 계약이 반독점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구조화됐는지 조사 중. 이번 거래로 그록 CEO와 사장이 엔비디아로 이직했으며 그록은 독립 기업으로 존속, 직원들은 사실상의 인수합병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라이선스·채용 결합 형태의 거래로 규제 심사를 우회하는 빅테크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
9/11	미국 8월 PPI 에너지 반등으로 3개월 만에 최대 상승 미 노동부, 8월 PPI가 MoM +0.4%, YoY +5.4%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발표. 에너지 가격이 4.2% 상승하며 상품 지수 상승분의 4분의 3 이상을 견인했으며, 디젤 연료는 24.1% 급등. 근원 PPI는 MoM +0.2%, YoY +4.6%로 예상치에 부합. PCE에 반영되는 포트폴리오 운용 수수료(-1.6%)는 하락한 반면 항공료는 7월 하락에서 반전해 +4.2% 상승
9/11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용량 2032년까지 3배 이상 확대 MS의 전 세계 데이터센터 용량을 2032년까지 현재 12GW에서 38G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뉴욕주 전력 수요 정점기를 웃도는 규모. 현재 12GW 중 AI 전용 칩 기반 용량은 약 2GW에 불과하나 2032년 목표치의 약 3분의 1까지 늘어날 전망. 나델라 CEO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용량을 가동하고 있다"며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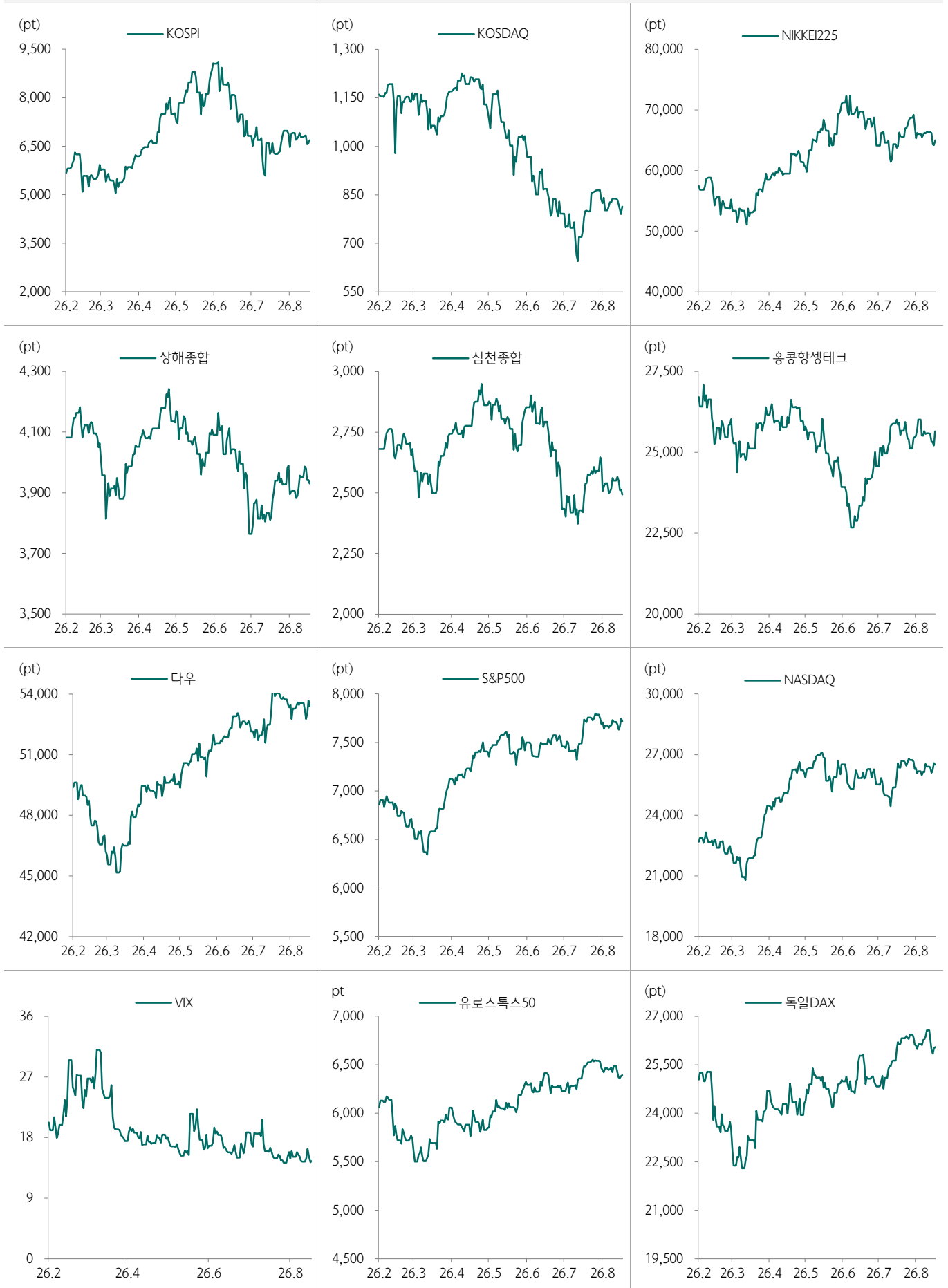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9월)

일	화	수	목	금
	1	2	3	4
	PANW MDT CRDO MDB DELL GTLB	AVGO SNOW HPE NTAP	CIEN LULU ZS IOT PL CPB DOCU	
7	8	9	10	11
	TTAN	AVAV	ORCL ADBE M	KR
14	15	16	17	18
	TCOM	LEN	CCL	VFS
21	22	23	24	25
		GIS	COST NKE JBL	
28	29	30		
	MU AZO KMX	CTAS PAY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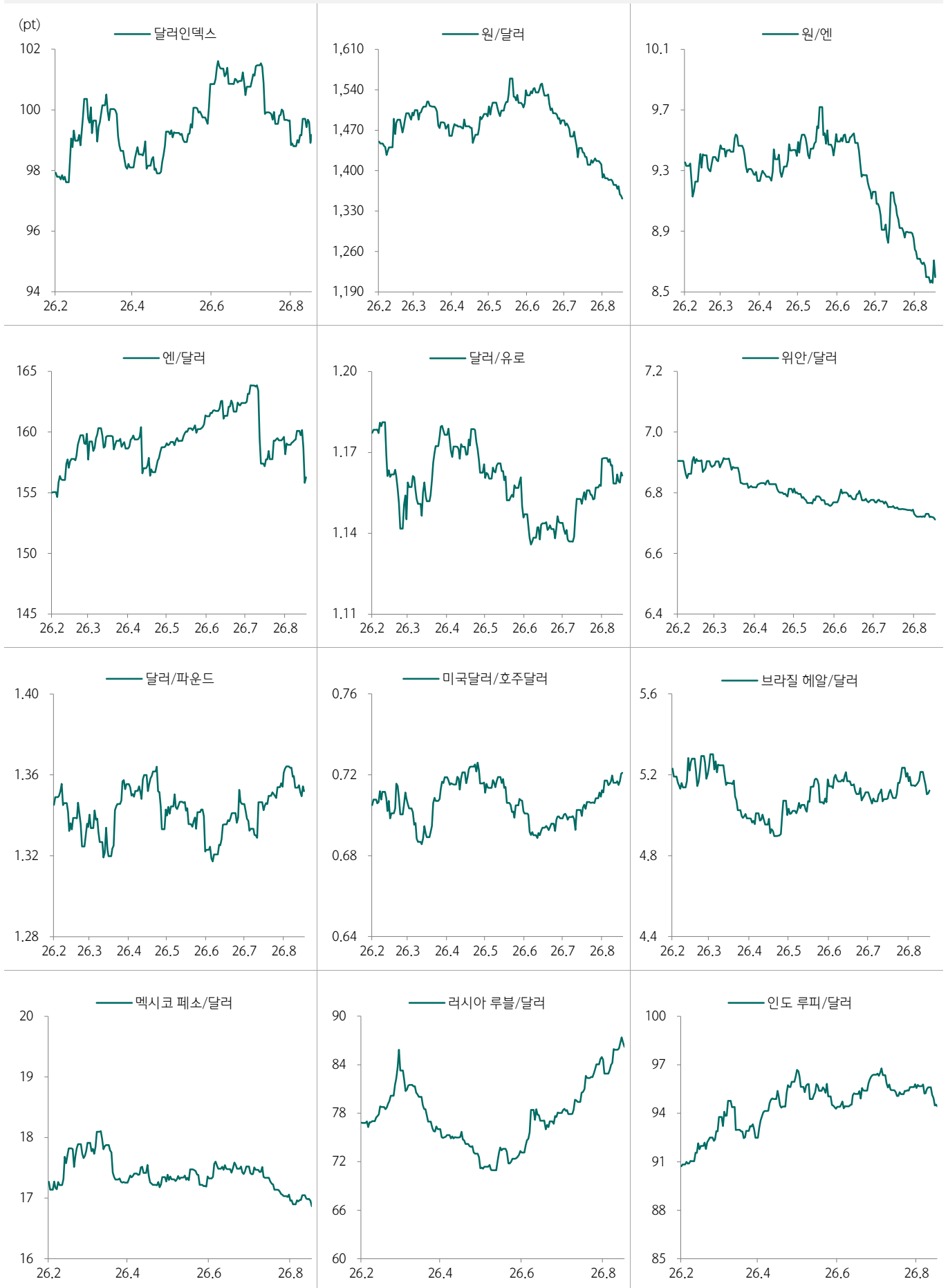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9/15(화)	- 미국 FOMC(~9/16) *금리결정 9/17 03:00 KST 9월 미국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9/16(수)	8월 근원 소매판매 (MoM 이전 -0.3%) 8월 소매판매 (MoM 이전 -0.6%) 8월 수출/입 물가지수 (MoM 이전 -1.3%/-0.4%)
9/17(목)	9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이전 47.4) 9월 필라델피아 연준 고용률 (이전 27.9) 3분기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now [P] 8월 주택착공건수 (MoM 이전 -12.4%)
9/18(금)	8월 미국 선행지수 (MoM 이전 0.2%) 8월 산업생산 (MoM/YoY 이전 0.2%/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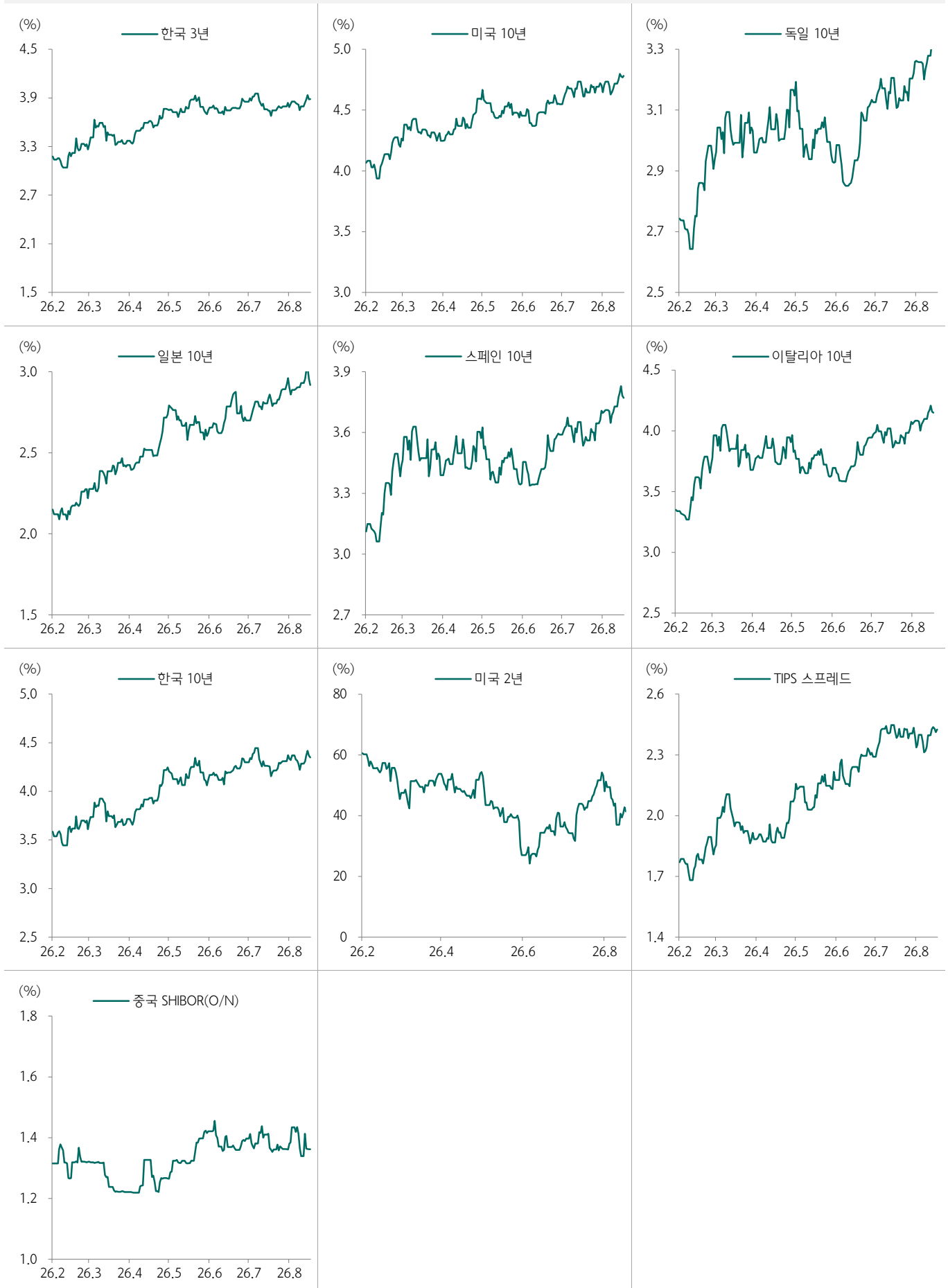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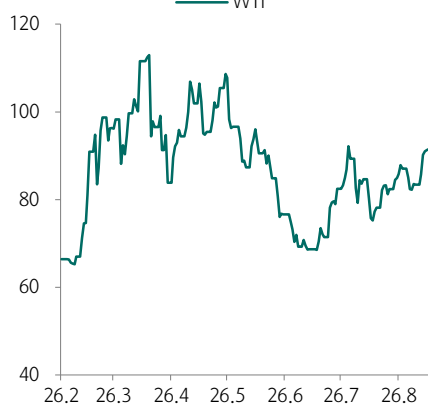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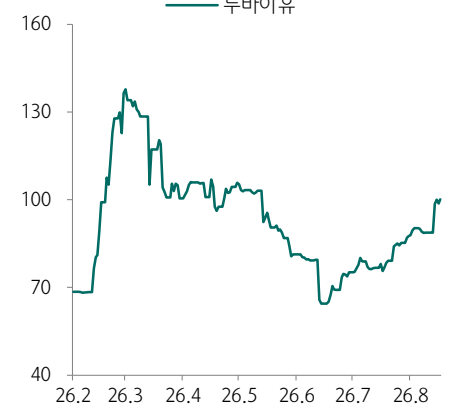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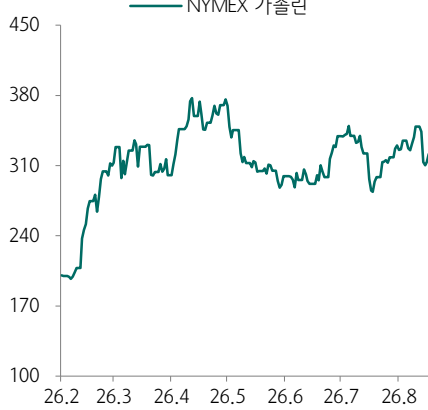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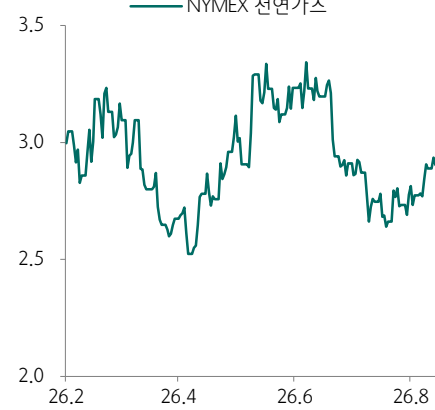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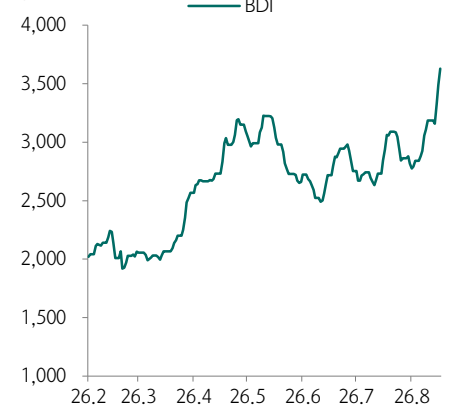
(달러/배럴)



(달러/MB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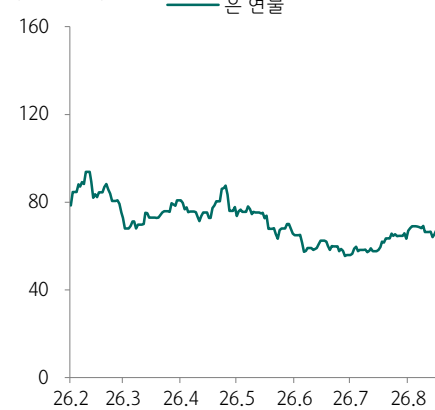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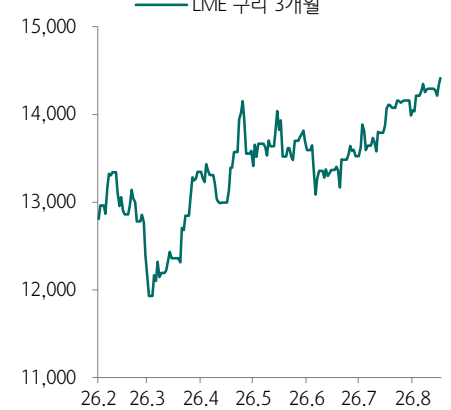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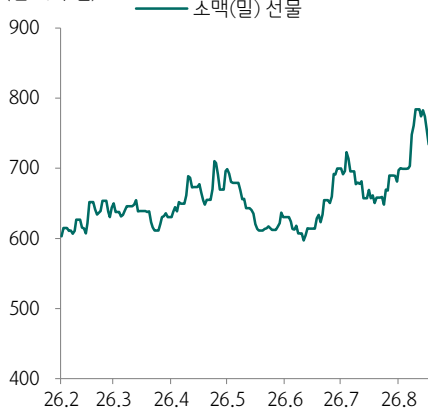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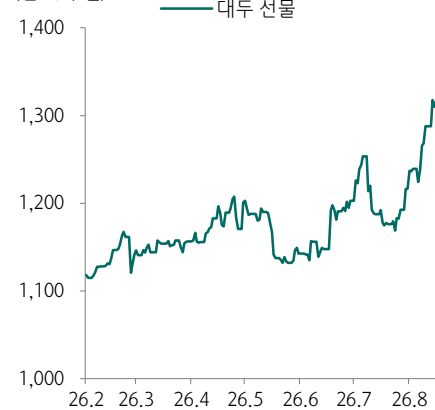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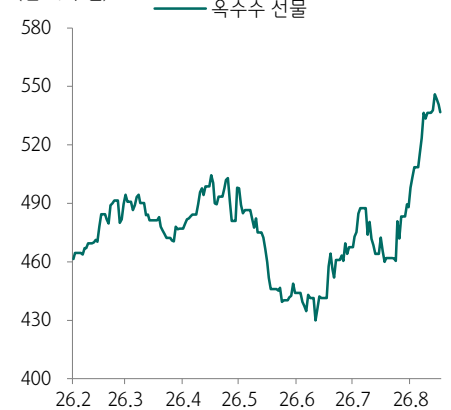
(센트/부셀)



(센트/부셀)



(센트/부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1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9월 14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